

기독교상담에서 본 예배의 치료적 역할

전 요 섭 교수

(Ed.D., Ph.D., 성결대학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에서 본 예배의 치료적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예배의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밝혔으며, 예배의 요소 그리고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축도 등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 다루었다. 예배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적 기능, 친교적 기능, 축제적 기능 그리고 치유적 기능이 있다. 만일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육체적, 심리적, 영적 치유를 경험할 것이 분명하다.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유자 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현상이다. 예배를 통한 치유현상은 일부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예배의 치료적 효과와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어야만 한다. 예배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치유를 얻게 되는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자는 예배와 치료적 효과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중심단어 : 예배, 치료적 효과, 기독교상담, 치유, 은혜의 방편

I. 여는 글

예배는 근본적이며, 핵심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방편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차원에서 예배는 치유적 효과가 있다. 이 치유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심리치료적인 것과 육체적인 면을 포함한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치유와 회복은 예배의 본질을 추구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부가적 효과 일 뿐, 그것을 예배의 본질로 이해하면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흐르기 쉽다. 예배를 통해서 발생하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강박 등의 치유와 회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이며, 현상이다. 오순절주의적인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간혹 비판을 받는 이유는 예배의 본질보다는 예배에서 나타나는 치유현상을 추구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Seward Hiltner는 치유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손상을 입었던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인간의 상실된 기능이 전인적으로 완전히 작용하는 것이며 기능적인 완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¹⁾ 치유는 삶에서 범죄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과 전인적인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향한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 예배를 통한 치유는 예배의 부가적 효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를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치료와 치유 및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치유를 받기 위한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가장 현저히 일어나는 때가 예배드릴 때이다. 예배는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치유를 체험하기 위한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가장 현저히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 거룩한 존전에서 신자들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며, 사죄와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예배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확신을 통해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까지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³⁾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치유의 원동력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시 63:5). 예배에서 죄가 다루어진다면 신자들의 마음에는 죄책감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예배에서 회개와 기도가 다루어진다면 신자들의 마음에는 사죄로 인해 평안과 기쁨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치유가 발생된다. 예배에서 치유가 발생하는 것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출 15:26)’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예배를 치유와 관련해서는 John Turner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예배 의식 속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종류의 치유가 일어나게 마련이다.”⁴⁾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예배 자체의 치료적 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구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를 비롯하여 회당예배,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예배, 종교개혁과 관련된 예배를 포함한 예배사 및 예배의 변천사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였다. 또한 기독교예배는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본 연구에서는 말씀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학적 견지에서만 예배를 기술했다.

II. 찢는 글

1. 예배의 정의와 개념 이해

1) 예배의 정의

기독교 예배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예배의 규범은 성경을 기초로 하며 그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다.⁵⁾ 예배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찬양, 존경 그리고 영광을 드리며 섬기는 행위이다.⁶⁾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worship 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worship은 앵글로색슨어 weorthscipe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치’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 신분을 의미하는 ship이라는 용어의 합성어이다.⁷⁾ 이 말은 간혹 영국에서 1549년부터 국교도의 결혼식에서 “나는 그대를 내 몸으로 존경(worship)합니다!”는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이다. worship의 기본 개념은 “상대방을 존중하여 가치있게 여김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예배는 인간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물론 하나님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Webster사전에는 “예배란 지고자에게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같은 것으로 신적인 존귀와 숭배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다.”⁸⁾라고 정의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주적 주권과 권위를 가진 이가 없으므로 피조물은 그에게만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며 지고의 가치를 돌려야 한다.⁹⁾

예배의 한글사전적 정의는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다. 이러한 한글사전적 정의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약을 살펴보면 예배의 전체적 의미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휘가 히브리어 **שָׁחַ**이다. 이 말의 뜻은 ‘봉사’ 또는 ‘섬김’의 의미가 있으며, 영어에서 예배를 service라고 표현할 때 그 기원은 이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은 성전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사용된다. 그것은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 이 말은 노예나 고용된 종들을 의미하였다.¹⁰⁾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면서부터 제물을 드리는 봉사와 레위인들이 회막에서의 봉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두 번째 중요한 어휘는 sachah이다. 이 말의 뜻은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앞드리는 것’으로써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은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든가 “앞드려 경배했다.”라고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사용되었다(창 24:26, 출 4:31, 34:8).

신약성서에서 사용되는 헬리어 $\pi\rho\sigma\kappa\upsilon\nu\epsilon\omega$ (프로스쿠네오)의 그 문자적 뜻은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혹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 자신을 앞드리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혹은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와 관련되어 사용하기도 했으나 신약성서에서는 이 단어가 약 24회 사용되었는데 신성한 대상에만 관련하여 사용하였다.¹¹⁾ 다음으로 $\lambda\alpha\tau\rho\epsilon\iota\alpha$ (리트라이)는 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상전만을 섬겨야 하는 신분을 확인시키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외에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는 $\lambda\epsilon\iota\tau\rho\upsilon\gamma\iota\alpha$ (레이트루기)는 일반적으로 예전의 의식과 관계를 맺는 단어이다. 본래의 뜻은 “백성을 위하여 일 한다.”는

뜻으로 도시국가였던 아테네를 위하여 수행되어졌던 일반적인 임무에 사용된 단어이다. 그러나 그 후 이 용어는 기독교 예전, 특히 성례전 의식이나 그 외 특수한 의식을 집례 할 때 활용되었다. 그때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의 의미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제사장의 직무(눅 1:23), 그리스도의 직분(히 8:6), 교회의 예배(행 13:2) 등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되었다.

Covenant신학교 교수 Raymond Abba는 예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는데 “예배는 신자의 새 생명의 활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격의 충만과 그의 강력한 구속 행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합당한 존귀, 영광, 순종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²⁾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성품과 그분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인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려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주관적인 경험인 내적인 마음의 태도와 객관적인 행위의 외적인 행동의 결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예배는 전인격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예배에 관여하여야 한다.

2) 예배의 개념

C. W. Brinster는 목회활동은 의료적인 의미에서 볼 때 치료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예방적이며 교육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¹³⁾ 그러나 이 주장은 목회의 기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진술이다. 목회의 모든 활동은 예방적이며 치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예배는 정확하게 치료적이며, 예방적인 기능 모두를 포함한다. 통상 목회의 기능을 논할 때 4대 기능을 다루고 있다. 유지, 인도, 치유, 화해 가운데 이 네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예배이다.

이럴테면 심방의 경우는 치유, 화해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목회상담과 예배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즉 치유적 방편으로 예배가 활용될 수 있으며, 효과적 예배를 위한 상담은 서로 필수적인 것이다. 예배에서 목회자의 일방적이고 단독적인 예배 행위로만 끝나버리고 참여한 회중들과의 감정적 영적 일체감을 가질 수 없다면, 즉 회중의 감동이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치유의 효과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배에 참석한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때 그만큼 치유의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¹⁴⁾

2. 예배의 구성 요소와 치료적 효과

성경에는 예배순서가 기록된 곳이 없다. 다만 예배의 요소가 나타나 있을 뿐이다. 교회의 역사가 거듭됨에 따라서 예배의 본질에 변함은 없으나 그 방법은 변화되었다. 예배를 주도하는 인도자가 예배의 변화를 요구해 왔고,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이 변화를 요구해 왔으며, 이 사회와 문화가 예배의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많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왔지만 현대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예배의 요소를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에는 크게 찬송, 기도, 말씀, 봉헌, 축도 등이 있다.

1) 찬송

찬송은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성경에는 찬양과 관련된 히브리어, 헬라어가 대략 80가지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용어는

서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 중 많은 낱말은 한 어근의 파생어로 되어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¹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듣거나 부를 때에 심리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자세나 손과 발에서 또한 그의 눈의 움직임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특별히 찬양을 통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믿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¹⁶⁾

예배 중에 회중이 한 가사로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또한 신자들의 생각을 가사에 통일시켜 하나의 이념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신자는 찬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인식하게 한다.

찬송은 예배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Bruce Leatblad는 찬송 그 자체가 예배라고 주장했다.¹⁷⁾ 이 말은 예배에서 찬송의 기능을 강조한 면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찬송 자체가 예배일 수는 없다. 찬송은 예배 가운데 하나의 요소이며,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찬송의 선곡은 목회자의 자유에 따른다. 그러나 설교 이후에 있게 될 찬송은 설교의 내용과 밀접한 것일 때 신자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갖게 된 결심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를 반복하여 더욱 강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설교 후에 있게 될 찬송에 제공해야 한다.

신자들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통해서 신앙고백이 가능하며, 긍정적이며 확신 있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치유가 발생될 수 있다. 찬송가의 박자에 따라서는 심리적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사울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다윗이 음악을 통해서 치료한 예는 찬양의

치료적 효과를 명백하게 드러낸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찬송을 비롯한 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⁹⁾ 목소리를 함께 합창으로 부르는 회중찬송은 하나의 가사를 생각하게 하므로 회중의 연합을 초래하게 하며 외적 행동을 야기시키는 능력이 있다.²⁰⁾

2) 기도

예배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William E. Hulme은 “물론 예배에는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²¹⁾고까지 주장했다. 예배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도가 예배이거나 예배의 중심일 수만은 없다.

한국교회 예배순서에는 대개 예배의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회중의 대표에 의한 대표기도, 목회자의 설교 후 있게 되는 목회기도 등이 있다. 이 모든 기도의 종류가 다른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²²⁾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James A.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³⁾

① 하나님의 임재와 불드심을 느끼도록 돕기 위하여 기도한다. ②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직면하도록 기도한다. ③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내적 평화와 성령에 의지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 ④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와 같은 기도의 의도는 대표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개인기도에서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표현의 방법이다.²⁴⁾

특히 설교를 마치고 난 후 있게 될 목회기도에서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Francis MacNutt은 기도를 통한 치유는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경우는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의 경험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기도한 사람의 약 75%는 완전히 치유를 받거나 또는 현저한 양상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²⁵⁾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대하는 바를 신뢰하고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데 치유가 예외는 아니다. 즉 기대, 겸손,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초대하는 지름길이다.²⁶⁾

한국교회 예배순서 중의 기도는 크게 개회기도, 목회기도, 설교 후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예배는 개회기도로서 시작한다. 이 기도에는 특히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게 된다. 기원한다는 단어는 ‘요구하다’ 혹은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예배 가운데서 회중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사회자가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²⁷⁾ 설교 후 기도는 통상적으로 설교의 내용에 관계된다. 설교의 메시지의 응답을 주로 한 것이 적절하다.

회개는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자비 가운데로 나가는 과정과 태도가 바로 회개이다.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와 대면할 수 있으며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배에 있어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있는 실존으로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는 공동체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²⁸⁾ 특별히 예배자가 내면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품고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해지며 이 때 치유는 경험하기 어렵게 된다.

죄의 고백과 용서는 예배의 핵심적 요소이며, 치유가 발생하는 변인이기도 하다. 신자들이 회개를 한 뒤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정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하지만 단순히 회개보다는 회개와 아울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데서 온전한 치유가 비롯된다.³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어 심리적 건강이 나빠지게 되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과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죄를 철저히 깨닫고 뼈저리게 뉘우치며, 낱말이 고백하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사람에게서는 누구에게나 치유의 기회가 열려 있다.

참회기도는 고백기도라 할 수 있다. 이 기도는 자신이 살아 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실존으로서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는 개인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 하시리라(시 66:17-18).” 이때에는 성경에 근거한 용서의 신인이 필요하다. 회중들이 용서받은 기쁨을 간직하도록 성경을 인용하여 용서의 신인을 해줌으로써 사죄의 확신을 갖고 치유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근래 한국교회는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 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지만 주일예배리는 공식적인 시간에 공식적인 순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참회의 기도 순서만 있어서는 안 되며, 용서의 신인이 아울러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순서는 면죄를 신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충분한 구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하여 확인된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와 은혜의 보증을 성서의 말씀을 통해 선언하는 것이다.³¹⁾

3) 말씀

예배에서 말씀은 성서교독, 성경봉독, 설교 등이 포함된다. 회중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고대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신다. 예배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시나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유대인의 예배, 특히 회당 예배에서 중심적인 자리에 놓이게 만든 것은 에스라 때부터였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적 상태가 낮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옷을 찢고, 금식하며, 영적 갱신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인도 하에 예배갱신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느 8:5-8). 이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성경봉독자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섰다는 점, 성경을 펼 때 회중들이 일어섰다는 점,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점, 레위인들이 성경을 봉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는 점, 이에 회중이 그 뜻을 다 깨달았다는 점 등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성경을 수동적으로 그냥 읊조린 것이 아니며, 단지 설교에 이르는 서론에 불과한 것도 아니었다. 이같이 성경에 큰 강조점을 두는 태도는 성전 예배에서부터 회당 예배로 직접 옮겨졌으며,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에서 우울, 불안, 공포, 강박 등의 신경증을 비신앙적으로 보고 이것들을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신경증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이해하고, 그 설명을 듣는 설교시간은 신경증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 거듭됨으로써 신앙적 저항력을 키우게

되므로 설교는 치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또한 예배 가운데 치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설교 중에 설교자가 치료에 대한 신자들의 기대를 높여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배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설교자 자신이 기대하고 신자들에게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설교를 통해서 가능한 치유의 방법이다.³²⁾

주일마다 예배에서 설교를 경청하는 신자들은 신자로서의 정체성 수립이 가능하다. 신자의 개념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의, 신, 봉사, 사랑, 인내, 용서, 절제, 화평, 죄에 대한 거부 등을 형성했거나 아직 형성하지 않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받게 되는 상황은 죄와 실수, 실패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질병 등의 치료나 치유 이전에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된다.³³⁾

4) 봉헌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다. 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감사를 표현하는 봉헌순서는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앞에 신자들이 드리는 응답적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므로 봉헌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³⁴⁾ Richard G. Jones도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며 예배자가 무엇인가 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³⁵⁾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성취감은 회복의 기초가 되지만 치유를 얻기 위하여 물질을 바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개념으로서 바르지 못하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 생을 헌신하겠다는 헌신이 근본적인

봉헌이다. 그러나 그것을 순간순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은 봉헌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봉헌은 단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 봉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작은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배로 모일 때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이나 예물을 드리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고전 16:2, 고후 8:2-4, 고후 9장). 이렇게 헌금하도록 한 이유는 빈궁에 처한 신자들을 돕는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곳에 사용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하여 물질을 바치는 문제의 소중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바울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권면했으며,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후 9:7)는 해석과 함께 신자들의 단순한 구제행위로서 끝나는 순서가 아니라 봉헌행위는 하나님의 신하신 뜻을 위하여 바치는 성도의 당연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도록 헌금한 사람은 마음의 보람을 갖게 된다. 성취와 보람의 경험은 영적, 심리적 성숙을 초래하며 치유의 초석이 된다.

5) 축도

축도는 ‘축복기도’의 줄인 말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배가 끝날 무렵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복을 구하여 비는 기도이다. 이런 축도를 받은 사람의 삶은 위로가 넘칠 것이다. 축도는 목사가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심을 선언하는 강복선언(降福宣言)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다.

축도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귀결된다. 첫째는 세상으로의 파송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구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축도의 근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예배순서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그 응답으로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또한 복을 빌어 주는 공식 행위는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들의 특유한 의무로서 확장지어 주고 있다. 민수기 6장 24-26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신약에서 복의 선언은 구약시대보다 명확하며 그 선언 내용도 구체화되어 사용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는 기독교 예배 속에 이미 오랜 시간 지켜져 정착된 순서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신자들은 축복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자의 삶은 진지해지며 축복을 받기에 위배되는 삶(죄)으로부터 자신을 조절하게 되므로 심리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축도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축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마저 갖게 된다.

3. 예배의 기능

1) 교육적 기능

예배에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Luther의 이해이다.

그는 1526년에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을 일깨우고, 신앙을 강화시켜 주며, 믿음을 도우는 역할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적 기능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잘 이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서구교회에서는 예배의 교육적 이해가 F. Niebergall에 의하여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신앙적인 교화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예배 전체를 통하여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적인 감화와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된 삶을 연습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직 복음을 집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잘 교육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³⁶⁾ John Calvin과 개혁파 교회의 전통에서는 처음부터 강한 교육적 이해와 기능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예배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한 가르침이었으며,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신앙고백이 중심을 이루었다.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교육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나 교회를 위한 신앙적 삶의 새로운 원리를 강화하는 장이요, 그 속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가르침으로서, 항상 삶의 지표로써 선포되는 것이며, 개개인의 신앙 강화에 교육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2) 친교의 기능

만남과 대화라는 용어는 친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려왔지만 Robert Webber와 J. J. von Allmen은 예배를 일컬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만남”³⁷⁾이라고 정의했다. 또 John Huxtable은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대화”³⁸⁾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 대화라는

의미는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는 친교를 지칭하는 말이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응답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친교하기 위하여 인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 예배이다.³⁹⁾ 하나님의 은혜의 밑씀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에 인간이 참회와 감사와 헌신과 찬양으로 응답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⁴⁰⁾ 친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친교이다.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친교의 기능이 예배의 기능에 내포된다.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해 외로움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밑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희망이 싹 터 슬픔이 치유된다. 또한 용서 받았기에 용서하게 될 때 새로운 희망이 싹터 슬픔이 치유된다. 하나님은 인생의 사소한 일조차도 처리해 주실 만큼 위대함을 깨달을 때 근심이 치유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가 인식할 때 자기 비하가 치유되고,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강박관념이 치유된다.

내적인 공포, 갈등, 감정적인 장애, 잘못된 태도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면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때때로 따뜻한 빛이 온 몸에 흐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해짐을 받게 되어 그 고백을 할 때 놀랄 것이 없고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서 John Turner는 예배할 때에 신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만 몰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하심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욱 신자에게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이 신자에게 치유를 베푸실 조건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이 말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어떤 사람이 치유되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큰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는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며 모든

조건이 채워지면, 치유가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러한 예배 안에서는 쉽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한 곳에서는 치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3) 축제적 기능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서 갖게 되는 감격의 축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이며,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축제이다. 예배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에 대한 감사 행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행사이다.

구약시대의 장막 예배의 성격은 제사와 축제의 예배였으며, 신약의 예배도 본질적으로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성업, 즉 창조, 섭리, 구원의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을 통한 계시, 십자가, 부활, 성령강림을 통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 이 모든 일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축제였던 것이다. 예배를 축제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성찬의 본질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 그것은 과거의 인도, 보호 등의 축복에 대한 회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만찬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관계에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배와 성찬은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축제와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치유적 기능

기독교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존재이고,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임재하시사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며 그의 심령을 치유하신다⁴¹⁾ 치유는

마술적 능력이 아니라,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고 하신 말씀에 따르면 신약의 예배는 의식과 형식의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임을 알 수 있다 “신령으로(ἐν πνεύματι, in spirit)”라는 표현의 영어는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NIV)”로 되어 있다. 여기서 신령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는 용어에 나타나듯 “영적으로..”는 잡생각없이 생각을 집중시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온 정신을 모아 드리는 예배이다. 한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핵(core)이 정신이고 영혼인데 이것을 집중시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이다. 또한 “진정으로(ἐν ἀληθείᾳ, in truth)”드린다는 의미는 “ἐν ἀληθείᾳ”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는 “진실” 또는 “진리”라고 해석된다. 정황으로 볼 때 “진실”이라고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진실이란 예배자와 하나님 간의 진실을 뜻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가식이며 왜곡이고 허위이며 거짓이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체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을 드릴 때 바른 예배이며 여기서 치료와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아신다는 말이다. 우리말에 “귀신 같이 안다”는 말이다. 인간으로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배가 영적이라고 해서 예배의 형식이나 의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

라, 예배적 형식위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배자들의 자기 봉헌이 있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얻는 감동과 변화는 모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며, 그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면 치유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Howard J. Clinebell은 “효과적인 예배 행위는 어디에서나 좋은 집단치료가 된다.”⁴²⁾고 주장했다. 치유 또는 예배를 통한 심리치료 등이 목회나 예배의 본질이라든지 또는 최상의 목적은 절대로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됨으로써 죄와 공포,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럼으로써 예배를 통하여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부가적인 의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Turner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게 마련이다.”⁴³⁾라고 했다. 그는 예배를 통한 치료의 과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육신을 평안히 하고 긴장을 푼다. 둘째,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한다. 셋째, 두려움, 분노, 근심, 죄의식, 불안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 넷째, 자신의 원하는 것을 상상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다.⁴⁴⁾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악한 생각과 악령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일체감을 맛보며 하나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은 안정된 심리적 체계를 갖게 된다.⁴⁵⁾ John McNeil은 예배는 영적 활동으로서 예배를 통해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 문제가 회복되며, 정신적 문제가 회복되면 육체적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⁴⁶⁾ 치료는 부분적인 회복의 개념이지만 치유는 전인적 회복의 개념이

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서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므로 예배는 전인적 치유의 방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III. 닫는 글

본고에서는 예배의 치료적 효과 및 상담과의 관련성을 분석, 정립함에 있어서 예배의 이해(예배 정의와 개념)를 기초로 예배의 구성 요소(찬송, 기도, 말씀, 봉헌, 축도)와 치료적 효과, 그리고 예배의 기능(교육적 기능, 친교의 기능, 축제적 기능, 치유적 기능)을 다루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모임이나 축제가 아니라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행위이다.⁴⁷⁾ 진정으로 치료와 치유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중에 죄가 다루어져야 하며,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을 강하게 느끼고, 신뢰하는 것이 치유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배의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며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남과 자연히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형식적인 예배 순서 자체에 마술적 치유의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적 가치로만 예배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예배가 제공하는 은총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신자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하며, 최대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은 심리적 질병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 신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므로 심리적 질병의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배는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대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예전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로 구분할 수 있다.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주일에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준비된 예배의 순서를 따라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말한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예배가 또 있다. 그것이 삶으로서의 예배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서의 예배를 말한다.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신 주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주일 예배에 힘쓸 뿐 아니라 삶의 예배를 힘써야 한다. 이러한 예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는 서로 상호보완관계에 놓여 있다. 공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삶의 예배는 다시금 세상에로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인간을 위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이다. 하나님 중심적, 즉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예배가 바른 예배이다.⁴⁸⁾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마음이 없거나 감사의 여부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의심받게 한다. 어떤 예배이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떠난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의 본질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예배지는 존경의 마음과 복종의 마음, 경배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차적이며 부가적인 치유와 회복이 축복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즉 치유를 받으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배에는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치유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른 예배정신이 아니다. 2차적인 것을 본질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욕구충족적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즉 치유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개념상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것은 인본적이고 자기숭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사상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사상으로 충만할 때만이 진정한 예배신학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예배신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해야만 한다.

참고 문헌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Abba, Raymond.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ree Churches*, 허경삼 역,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Adams, Jay E.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Allmen, J. J. vo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역. 「예배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 1979.

Alvin, Juliett. *Music Therapy for the Autistic Child*, 김군자, 이철규 공역. 「자폐아를 위한 음악요법」. 서울: 서정, 1986.

Benenson, Rolando O. *Music Therapy Manual*. Springfield IL.: Thomas Book,

1981.

Brister, C. W. *The Promise of Counseling*, 민병소 역. 「카운셀링과 정신의학의 대화」. 서울: 성광문화사, 1981.

Burkhart, John E. *Wor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1982.

Carothers, Merlin R. *Power in Praise*, 민병길 역. 「찬송생활의 권능」. 서울: 보이스사, 1982.

Clinebell, Howard J. *The Mental Health Ministry of Local Church*. Nashville: Abingdon, 1972.

Collins, Gary. *The Biblical Basic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Colorado Springs, NAV Press, 1993.

Culbertson, Philip. *Caring for God's People*. Minneapolis: Fortress, 2000.

Dayringer, Richard.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New York: Haworth, 1993.

Forrester, Duncan B., McDonald, J. Ian H. & Tellinni, Gian. *Encounter with God*. Edinburgh: T. & T Clark, 1996.

Hiltner, Seward.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Hoon, Paul W.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1971.

Hulme, William E. *Pastoral Care Come of Age*. Nashville: Abingdon, 1970.

Huxtable, John. *The Bible Says*. Richmond: John Knox, 1962.

John Turner, *Healing Church*, 김선도 역. 「치유하는 교회」. 서울: 광림, 1986.

Jones, Richard G. *Groundwork of Worship and Preaching*. London: Epworth, 1980.

Kelsey, Morton T. *Healing & Christianity*, 배상길 역. 「치유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 1991.

Kirwan, William T.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 Kittel, Gerhar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신약성서 신학 사전」. 서울: 요단, 1986.
- Leatblad, Bruce. *Music, Worship and the Ministry of the Church*. Portland, OR.: Western Conservative Baptist Seminary, 1978.
- MacArthur, John. Jr. *True Worship*, 한희룡 역. 「참된 예배」. 서울: 두란노, 1986.
- MacArthur, John, Jr. “Worshiping” John MacArthur, (ed.) *Rediscovering Pastoral Ministry: Shaping Contemporary Ministry with Biblical Mandates*. Dallas: Word, 1995.
- MacNutt, Francis. *The Power to Heal*, 「치유의 능력」. 서울: 전망사, 1998.
- Martin, Ralph P. *Worship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9.
- McNil, John. *A History of the Cure Souls*. New York: Harper & Row, 1977.
- Rayburn, Robert G. *Cooperate Worship In The Evangelical Church*, 김달생, 강귀봉 공역. 「예배학」. 서울: 성광문화사.
- R. Laird Harri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구약원어 신학 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Segler, Franklin M. *Christia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진황 역. 「예배학 원론」. 서울: 요단, 1979.
- Shulberg, Celilia H. *The Music Therapy Source Book: A Collection of Activities Categorized and Analyzed*. New York: Human Science, 1981.
- Taylor, Jack R. *The Hallelujah Factor*, 이석철 역.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서울: 요단, 1985.
- Webber, Robert E. *Worship-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1982.
- Wimberly, Edward P.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4.

후주

- 1) Seward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117-21.
- 2) Morton T. Kelsey, *Healing & Christianity*, 배상길 역, 「치유와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 1991), 6.
- 3) John Turner, *Healing Church*, 김선도 역 「치유하는 교회」(서울: 광림, 1986), 101-8.
- 4) Turner, 91.
- 5) Franklin M. Segler, *Christia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진황 역, 「예배학원론」(서울: 요단, 1979), 28
- 6) John MacArthur, *True Worship*, 한화룡 역, 「참된 예배」(서울: 두란노, 1986), 7.
- 7) Ralph P. Martin, *Worship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9), 10.
- 8) Robert G. Rayburn, *Cooperate Worship In The Evangelical Church*, 김달생, 강귀봉 공역, 「예배학」(서울: 성광문화사), 27.
- 9) Paul W. Hoon,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1971), 91.
- 10) R. Laird Harris 외,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구약원어 신학사전」(서울: 요단, 1986), “예배.”
- 11) Gerhard Kittel 외,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신약성서 신학사전」(서울: 요단, 1986), 1056.
- 12) Raymond Abba,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ree Churches*, 허경삼 역,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27.
- 13) C. W. Brister, *The Promise of Counseling*, 민병소 역, 「카운셀링과 정신의학의 대화」(서울: 성광문화사, 1981), 106-11.
- 14) Brister, 137. cf. Edward P. Wimberly,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4), 250.
- 15) Jack R. Taylor, *The Hallelujah Factor*, 이석철 역,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서울: 요단, 1985), 126.
- 16) Merlin R. Carothers, *Power in Praise*, 민병길 역, 「찬송생활의 권능」(서울: 보이스사, 1982), 28.
- 17) Bruce Leatblad, Music, *Worship and the Ministry of the Church* (Portland, OR.: Western Conservative Baptist Seminary, 1978), 51-7.
- 18) Jullett Alvin, *Music Therapy for the Autistic Child*, 김군자, 이철규 공역, 「자폐아를 위한 음악요법」(서울: 서정, 1986), 17.
- 19) 근래 일반심리치료에서 음악을 이용한 치료적 효과를 인정하여 ‘음악치료’라는 준

의료활동의 한 부분으로 그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 Rolando O. Benenzon, *Music Therapy Manual* (Springfield IL.: Thomas Book, 1981), 3.

20) Celia H. Shulberg, *The Music Therapy Source Book: A Collection of Activities Categorized and Analyzed* (New York: Human Science, 1981), 14.

21) William E. Hulme, *Pastoral Care Come of Age*, (Nashville: Abingdon, 1970), 151.

22) Turner, 49

23) Seward, 239.

24)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63.

25) Francis MacNutt, *The Power to Heal 「치유의 능력」*(서울: 전망사, 1998). 22.

26) Turner, 48.

27)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1979), 151-2.

28) Raymond Abba,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ree Churches*, 220-1.

29) 김동기, 「종교심리학」(서울: 학지사, 2003), 149.

30) Richard Dayringer,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New York: Haworth, 1993), 106.

31) Abba,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ree Churches*, 226.

32) Philip Culbertson, *Caring for God's People* (Minneapolis: Fortress, 2000), 273.

33)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204.

34) Martin, 122.

35) Richard G. Jones, *Groundwork of Worship and Preaching* (London: Epworth, 1980), 153.

36) John E. Burkhardt, *Wor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1982), 49-50.

37) J. J. von Allme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역, 「예배학원론」(서울: 대한기독교, 1979), 11.

38) John Huxtable, *The Bible Says* (Richmond: John Knox, 1962), 109.

39) Duncan B. Forrester, J. Ian H. McDonald, Gian Tellinni, *Encounter with God* (Edinburgh: T. & T Clark, 1996), 50-1.

40) Abba,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ree Churches*, 14-5.

41) Segler, 75-6.

42) Howard J. Clinebell, *The Mental Health Ministry of Local Church* (Nashville: Abingdon,

1972), 57.

43) Terner, 91.

44) Turner, 101-2.

45) Gary Collins, *The Biblical Basic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Colorado Springs, NAV, 1993), 195.

46) John McNil, *A History of the Cure Souls* (New York: Harper & Row, 1977), 319.

47) Paul Waitman Hoon,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1971), 77.

48) John MacArthur, Jr. "Worshiping" John MacArthur, (ed.) *Rediscovering Pastoral Ministry: Shaping Contemporary Ministry with Biblical Mandates* (Dallas: Word, 1995), 240.



Abstract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Worship Service in Christian Counseling

Joseph Jeon

(Ed.D., Ph.D., Sungkyul University)

This paper was to clarify on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worship service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counseling. This researcher dealt with evangelical definition on worship, components of worship, and therapeutic effectiveness including hymnal, prayer, preaching, offering, and benediction. There were three functions: educational, associational, festival, and therapeutic function in worship service. If a Christian worships God in truth, one is able to experience healing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spiritually. The object of worship is the living God. Also, God is the healer. So God is going to give the power of healing to His people. It is very important faith phenomenon for a Christian to experience healing power from God. That healing phenomenon through worship service is not for some Christians but all Christians who worship to God in truth, in spirit. Accordingly, Christian counselors ought to give a counselee notice therapeutic functions of worship service. Worship service must be an opportunity to gain healing as a mean of grace. The researcher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worship service and therapeutic effectiveness.

Key words: worship, therapeutic effectiveness, Christian counseling, healing, means of grace

K C I